

지역 매 아리

고창 인천강하구 국가보호지역 지정

정읍시, 향토자유수호 추념식 개최

정읍시는 24일 내장산국립공원 내 향토자유수호기념비 앞에서 6.25 당시 나라와 지역방호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국민방위군 전우들의 넋을 달래는 추념식을 가졌다. 6.25 당시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국민방위군에 지원입대하여 경찰과 합동작전을 벌여 내장산 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지역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방위군의 희생이 있었다.

향토자유수호 기념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희생된 정읍지역 순국지사 41인의 넋을 추모하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정읍시 향토자유수호비보존회(회장 김병주)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관내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향토자유수호 희생자유가족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향토자유수호 전사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추모하는 시간과 함께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발전과 자주국방 능력을 배양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년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충청북도지부장과 월남전참전유공자회 충청북도지부장 및 회원 50여명이 추념식을 함께 하면서 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정읍=김대환기자

연안-하구-육상생태계 습지생태축으로 연결하는 국내 첫 사례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아산면과 심원면 일대의 고창 인천강 하구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로부터 전국 25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24일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고창 인천강 하구습지는 아산 반암교에서 용선교까지(면적 722,000㎡)로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로서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연안(갯벌)-하구(인천강)-육상(운곡습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생태축)이다.

기존 습지보호지역인 고창갯벌(해양수산부)과 운곡습지(환경부)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지역으로 연안과 내륙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생태축)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

서식 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노랑부리백로, II급인 구렁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 전경.

이, 맹꽁이, 남생이, 검은머리물떼새,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등을 포함, 총 754종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

군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강하구 습지에 대하여 환경부·지역주민·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

명한 이용 등을 담은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시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12%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자연상태의 습지생태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원 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로터스,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1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상

정읍시는 24일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정읍시장과 ㈜로터스 박시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로터스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2019년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4,649.9㎡(1,406평) 부지에 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1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전망이다.

(㈜로터스는 서울 강서구에서 본사를 운영 중이며, 자체 브랜드인 '순창생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해태음료(제품명 : 빼어날 수), 롯데음료(제품명 : 아이시스)와 OEM 계약을 맺어 납품 중에 있다.

(㈜로터스는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30억원을 투자 중에 있으며 이번 증설 투자로 첨단과학산업에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샘플 생산과 PBT 용기 제조 생산을 일원화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기업 매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해주신 (㈜로터스에 감사드립니다"며 "정북지역 먹는 샘물 분야의 선두기업인 (㈜로터스가 이번 정읍 공장 증설을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먹는 샘물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현재 LH,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연계하여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협회 체계 구축 등 첨단과학산업단지 잔여부지 분양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까지 분양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내년도 정부 일자리 예산 설명회 개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는 정읍시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단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관협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일자리 컨설팅 수행기관인 '캡티브컬처기술원' 이정화 팀장은 정부가 설계한 내년도 일자리를 설명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18건의 일자리 수요가 접수됐다. 현장 접수된 주요 일자리 수요로는 ▲황토현관역 영농조합법인(5명) ▲정읍한우육종협동조합(청년채용 및 인턴 5명) ▲사회적기업 두손푸드(청년채용 3명) ▲마을기업 콩사랑(청년채용 2명) 등이다. 이로써 시는 설명회 18건(47명), 부서별 발굴 32건(142명)을 포함 모두 50건(180명)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규제개혁 점검회의 열어

정읍시는 24일 김인태 부시장주재로 규제개혁 관련부서에서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법령위임조례, 법제처조례규제개선 50선을 통한 규제완화 정비 추진상황 보고와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관하여 중점 논의했다.

시는 등록규제중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위반 및 근거 없는 규제, 기업들의 투자 결핍들이 되는 규제들을 발굴·완화하여 정읍시민 및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김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행정을 책임진 공직자들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이를 수 없다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시민·기업과 소통하는 현장밀착형의 업무 추진 자세를 강조하고 "규제개선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절실한 요청이므로 정읍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매년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하여 기업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을속으로~ 국화속으로~ 가을愛 국화빛축제

부안 가을애국화빛축제 내일 개막... 국화 1만2000여점 전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제8회 부안 가을애국화빛축제를 부안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가을속으로~ 국화속으로~'를 테마로 벤처농업인 대학 화훼작품반 교육생과 국화올타리 회원 50여명이 1년간 주말시간을 투자해 직접 가꾼 조형작, 다룬대작, 입국작, 분재작 등 12,000여점의 생동감 있는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화 조형작과 다룬대작에 오색의 LED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빛 축제도 함께 열린다.

국화올타리 김명섭 회장은 "출품작 모두 회원들이 1년 동안 정성과 애정 어린 손길로 키워낸 것으로 낮에는 그윽한 향기로 밤에는 찬란한 빛으로 군민들과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깊어가는 가을 군민과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제8회 부안 가을애국화빛축제를 부안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하고 회원들이 길러낸 국화 소품은 판매에 농업소득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화와 어울리는 문화공연으로 청소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마당을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 27일 축제 개막식에는 2023년 부안 새만금 잠버리 성공개회와 부안군이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약진하기를 기원하는 국화 빛 점등식이 개최될 예정으로 향기로운 가을밤 반짝이는 축제마당에 가족단위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선진농업기술, 정읍에서 배워요'

세계농촌지도포럼 농업전문가들, 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

24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이하 농업기술센터)에 선진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세계농촌지도포럼에 참여하는 독일, 스위스, 베트남, 필리핀 등 24개국 39명의 농업전문가들이 방문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의 농업분야의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추진전략 등을 소개하고 더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읍시농촌지도자회(회장 권동임)등 농업인학습단체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산물가공센터, 농업환경종합분석실 등을 방문하여 선진농업기술에 대해 배웠으며, 특히 농기계임대사업과 토양분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오후에는 정읍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를 방문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하는 시스템의 운영 현황에 대해 경청했다. 이후에 사과 연구회에 방문하여 연구회의 성공요인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솔티에떡에 방문하여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생산된 가공품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소득증대의 성공사례를 배웠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연구원은 "한국의 농업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면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회가 된다면 동료들과 다시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농촌지도포럼은 전 세계 60여개국 200여명이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농촌진흥청 및 농업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농촌지도협회의와의 국제협력 확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정와대 만찬주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E | 375ml 2ea/13%

TEL : 063-584-8980
www.gangsanwine.com